루프하는 아이A와 영원한 불면증에 걸린B

만나보기 위해서 끌려간척 교회에 찾아감

이름후보 데이텀(Tatum)

어디 전개 중간에 중간에 누명쓰는 알코올 중독 아재 하나 넣어주기

케이든이 저 부모 죽은 녀석! 하는데 스카일러가 우리 부모도 죽었는데 해서 분위기 싸해지는 거

등장인물

A) 스카일러 페이지(Skylar Page) -> 약 4년 전 마코하이에 이사왔다. 부모님이 안 좋은 일로 사망했는데 삼촌네에 맡겨짐. 근데 삼촌네 아인 사촌도 1년 전 불운한 이유로 사망함. 두 번의 죽음 다 스카일러는 그 시간에 연락을 씹고 자고있었음.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성격. 회의적. 부모님을 잃고 시골에 맡겨진 리버에게 은근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촌 동생과 겹쳐보이고 있다.

B) 리버 브레이(River Bray) -> 1학기 초반쯤 마코하이에 이사온 아이.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 이후 조모랑 살고 있으며, 조모는 이모탈리티에 가담하여 리버의 부모님을 살리려고 한다. 폭력적이고 불운한 가정에서 자라나 자존감이 낮으며 항상 자신이 없어서 주변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

C) 알렉스 파텔(Alex Patel) -> 인도계임

D) 아일라 머피 -> 할머니가 돌아가심. 케이든네를 대신해서 무슨 모임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이 일로 케이든과 서먹해졌음.

E) 케이든 래시 ->

F) 엘라노어 페이지 -> 스카일러의 사촌동생.

1. 학교에 불이 나서 함께 화마에 휘말리는 꿈을 꾸면서 깨어난다. 거기서 리버(River)가 화마 속에서 스카일러를 바라보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끝나게 된다.

2. 눈을 떠보니 1~2학기(TERM1~2) 개학을 한지 며칠째 5월 초. 뉴질랜드 시골 마을 램턴의 데임타운(마코하이). 스카일러는 세컨더리 스쿨(중학교)의 인터미디에이트 8학년(만 12세)에 재학중이다. 깨어보니 회귀 전의 기억은 악몽을 꾼 것처럼 엉망진창.

3. 스카일러(Skylar)는 반년간의 꿈을 꾸고 자기가 뭔 해괴한 꿈을 꾸었나 생각. 그러나 진짜 꿈인가?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스카일러는 약 반 년 전부터 이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잠을 잘 수 없는 질병.

3-1)-> 스카일러는 어느 순간부터 리버의 전화를 전부 씹었고 리버가 죽는 날에도 전화를 씹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리버는 스카일러네 집을 지켜주다 실종된다. 그리고 실종된 후 리버의 문자를 보고 리버를 찾으러 나가지만 범인한테 잡혀서 혼수상태. 리버가 그를 지키고 죽게 된다. 리버가 죽어가는 것까지 보고는 암전.

4. 그러나 학교에서 갑자기 소화기가 터져서 모두가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스카일러는 이게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소화기가 터진 틈을 타 알렉스라는 아이가 사라지고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뎌 입원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사실 범인이 민거임. 근데 스카일러는 이걸 미리 아니까 알렉스부터 챙김.

5. 스카일러는 시간을 되돌아 온 만큼 사건을 먼저 해결하였고… 리버는 이것을 보며 스카일러가 시간을 되돌아 온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

6. 한 학기동안 진행될 2인 1조 아키텍쳐 스터디 때 리버는 손을 들어서 스카일러와 하고 싶다 말하고 2인 1조 페어가 된다.

7. 스카일러 집에서 리버가, 네가 특별한 힘을 지닌 걸 안다. 그건 저주이다. 나도 같은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 리버의 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저주. 이전 꿈에서 그는 사망하였고, 자신의 죽음을 매개로 시간이 되돌아왔다고 한다. 마치 죽는 것이 예정된 사람처럼 리버는 죽는다. 이것이 벌써 8번째로 8번의 루프 속에 유일하게 다른 행동을 취한 사람이고 같이 저주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함.-> 왜냐면 이미 리버는 죽은 사람이라… 리버가 죽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8.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무섭다. 고 하는 리버. 둘은 같이 저주를 풀 방법을 찾기로 한다.

8-1) 꿈이 아닌 현실에서는 같이 저주가 아닌… 죽은 사람을 되살릴 방법을 찾자고 다짐함. 스카일러가 이모탈리티에 관여하게 되는 계기. 꿈에서는 이를 비틀어야 했고 저주 풀기로 진행.

->위에 이후로 약 1~2달 정도 흐름

리버와 간간히 저주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건질 만한 것은 없었다. 가끔 정신 나간 놈들 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고… 마을의 미친 사람이 이상한 종교 단체(이모탈리티)를 들먹이면서 설마 너희도 관심 있니? 있니? 하고 집요하게 쫓아와서 리버가 겁을 먹는 일도 있었다. 리버는 이상한 놈이었지만 보고 있으면 심심하지 않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안다. 리버의 어머니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다.

중간에 리버에 관한 짤막한 에피 하나 넣어줬으면. 이모탈리티 따라오는 사람 관련해서.

리암은 올해를 끝으로 이사갈 예정이고 멈춰서있는 건 나 하나.

둘이 같이 무슨 과제를 할지 정했다는 내용도 넣기. 수족관 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중간에 스카일러가 꿈 내용 정리한 것도 있음. 꿈에서는 괴물이 나오고 사람이 사라졌다. 얼마 전 시트리 씨의 아내가 가출을 하여 사라졌다… 이런내용도.

나는 아직도 자지 못한다로 시작함.

9. 학교에 간 스카일러는 다음날 리버가 결석한 것을 알았음. 학교 친구들은 스카일러에게 가서 걔… 좀 음침하잖아 별 일 없었어? 함

10. 스카일러는 별 일 없었고 좋은 애였다 하는데… 교내 불리 중 하나(알렉스 패거리) “사이도 좋지 너는 걔를 꼭 감싸더라?” 하면서 비아냥거리는데 스카일러는 기묘한 기분과 미안함을 느끼며 어어… 아냐 그정도는… 그정도는… 함

11. 저녁에 클럽 활동을 하는데 스카일러는 테니스 클럽임과 동시에 기악 클럽이었음. 학교에서 테니스 클럽을 하는데 이야기가 나옴. 중간에 아일라가 대화중에 우리 엄마가 요즘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나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지 않는다. 할머니가 죽은 이후 엄마가 너무 우울해 하는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를 함.

12. 스카일러의 친한 친구들인 리암과 칼로는 테니스를 치면서 학교와 학교 근처 뒷숲에 나오는 괴물 이야기를 하고, 많이 다쳐서 입원한 알렉스가 이 괴물을 보았다고 함

13. 우리 같이 괴물의 비밀을 파헤치지 않을래? 하는데 스카일러는 거절하려다가 꿈 내용을 떠올리고는 ㅇㅋ함.

14. 아이들은 미리 날을 정해서 어느 저녁 밤에 단단히 준비한 후 다시 모이기로 하고 해산.

15. 그날밤도 잠을 못 이루는 스카일러는 삼촌 내외가 싸우고 우는 소리를 들음. 에이프릴에 관한 것도. 스카일러는 어서 지긋지긋한 집과 마을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다.

15-1) 리버에게 문자를 보냄. 저주를 풀 방법은 알아봤어? 나는 오늘 오컬트 책을 뒤져보 었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 나중에 시내 갈 일이 있으면 서점에 다시 가보려고 해.

-> 약 1주 후

16. 모이는 날에 리버는 등교했음. 불리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던 걸 보다못해서 스카일러가 말 걸어줌

17. 오늘 저녁에 탐험 갈건데 너도 갈래? 쪽수는 많으면 좋잖아

18. 다른 애들은 엑… 하지만 어케저케 스카일러를 끼워줌

19. 저녁에 모임

20. 학교뒷숲을 도는데 별 일 없어서 에이 뭐야 하는데… 빌리의 일행 중 하나인 케이든의 비명소리가 들림. 애들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기묘한 소리를 듣게 되고… 검은 인영이 아이들 사이를 유령처럼 지나감. 애들은 소리를 지르고 앞으로 뛰어가자…

21. 인기척이 있는 곳으로 가자 옆 클래스 선생님인 스테파니 선생님과 딱 마주치게 됨. 스테파니 선생님은 울고있는 케이든을 달래주고 있었음.

22. 무슨 일인가요? 하니까 산책하던 중 줄을 놓쳐서 강아지를 찾으러 숲속으로 왔는데 우는 케이든이랑 만나서 달래주고 있었대

23. 케이든은 저쪽에 괴물이 있다고 엉엉 울어대고 케이든이 가리킨 수풀 사이로 스테파니 선생님의 중형견 강아지 파니니가 튀어나옴. 애들은 케이든 보고 겁쟁이라 웃고 돌아가게 된다.

23-1) 케이든의 썸녀인 아일라만이 케이든을 도닥여줌.

24. 근데 스카일러는 알고 있었음. 자기 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리버를…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리버한테 어서 돌아가자 들키면 부모님한테 야단맞겠다 하면서 손 잡아줌 -> 현실에서 리버는 이때 스카일러에게 빠지지 않았을까…

25. 스카일러는 리버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리버는 내일 방과 후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헤어짐. 리버는 머뭇거리다가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네 저주를 풀 수 있게 꼭 도와줄게.” 하고 들어감.

26-1) 사실 이때부터 리버는 스카일러에게 이모탈리티를 피하는 방법을 넌저시 알려주려 하지 않았을까

26. 방과후에 리암 집에 모여서 보드게임 하자고 칼로가 불렀지만 sorry 밀린 숙제 해야해 하고 스카일러는 후딱 리버네 집에 감.

27. 리버네 집에는 어머니 하나가 있음. 어머니는 그날 이모탈리티 집회에 나가 있었고 리버가 코코아를 타줌. 리버네 부모님이 살아있을 적의 이야기를 함.

어머니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는데 불행했다…

스카일러는 이 집의 우울함은 에이프릴을 잃은 우리집 우울함과 비슷하다 평가.

28. 아키텍쳐 과제를 하다가 리버가 먼저 입을 엶. “그 숲에는 진짜 괴물이 있어. 케이든이 만난 건 진짜야.”

29. 자기도 면전에서 마주친 적은 없지만 진짜 괴물이 존재하고 그 괴물은 사람을 먹는 괴물이라고 함. 자기가 여기 이사온 후부터 괴물의 존재를 알고 너무 무서워했다… 자기는 그 괴물과 마주치고 저주에 걸린 게 틀림 없다…

30. 스카일러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도 겁내하는 리버를 달래줌.

31. 리버는 스카일러에게 절대 절대 혼자서 숲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함.

31-1) 이모탈리티의 집회 장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람 묻힌 걸 봄. 반 년 전에 희생 된 클로비스 씨가…

32. 만약 그래도 숲에 가야한다면 꼭 자기를 데려가라 함.

33. 스카일러는 묘함과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시선을 느끼지만 일단은 알았다고 함.

34.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삼촌이 말하길 이모는 오늘 병원에 갔다가 다른 마을 아주머니들과 티타임을 가지고 있다고 함. 그래서 둘이서만 식사를 함. -> 이모탈리티 모임임

35. 삼촌은 아주 오랜만에 어색한 어조로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함. 스카일러는 그냥 그렇다고 하다가 넌저시 리버의 이야기를 꺼냄. 밥 먹으면서 이모가 가져다 둔 요상한 조각상을 봄. 이모는 에이프릴이 죽은 후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종종 의미 모를 미술품을 집에 가져다 두기도 했다는 말.

35-1) 이모탈리티의 상징이나 조각상임.

36. 삼촌 리버의 이야기를 잠시 듣더니 움찔하면서 죽은 부모님을 다시 돌릴 수 있으면 어떨 거 같냐고 물어봄. 스카일러는 러버의 회귀 능력을 떠올리지만 오늘은 이모가 술을 안 마시니 삼촌이 마셨냐면서 역정 내고 방에 들어감. 여기서 스카일러의 기본 자세이자 메인 메시지인 죽은 사람의 죽음을 극복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36-1) 왜냐면 스카일러는 부모님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6-2) 에이프릴의 죽음 이후 삼촌의 집에는 항상 우울이 깃들어 있었다.

-> 여기서 잠을 자지 않아도 악몽 같은 것을 본다는 말을 함. 부모님을 잃었을 때, 에이프릴을 잃었을 때. 꿈속에서 리버를 보았을 때 느끼던 감정도 앞의 둘과 비슷한 죄책감이었다 함.

->다시 1개월 후

37. 얼마 후 학교. 알렉스가 퇴원하고 갑자기 스태파니 선생님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소문이 쭉 퍼짐. 이 마을은 미쳤어요. 하고 알렉스 패거리 중 하나인 아일라 부모(경찰)에게 말했다는 것임.

38. 퇴원한 알렉스는 애들의 말을 듣고 그거 자길 민 놈의 소행이라고 씩씩댐. 아무도 안 믿어주지만 분명 키 큰 누가 밀었다고. 그러면서 스카일러 넌 못 봤어? 함

39. 스카일러는 못봤다고 하려다가 문득 회귀 전의 기억을 떠올림. 확실하지 않다.

40. 이에 케이든은 숲 이야기를 하고 알렉스가 숲에서 괴물을 보았고 처리당할 뻔한 거 아니냐는 말을 함.

41. 그래서 그날 함께 있던 스태파니 선생님도…… 하다가 침묵함. 다시 숲에서 뭘 본 게 아닐까? 그럼 그날 숲에 있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거지?

42. 함께 숲에 간 아이들은 벌벌 떨면서 대책 회의를 하자며 방과후에 모이라고 함.

43. 러버는 집안일 도와줘야 한다면서 못 끼고 나중에 스카일러가 전화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끊음.

44. 아이들은 모여서 괴물 대책 위원회를 엶. 부모님에게 말하고 경찰에도 말했지만 별 이상한 점이 없었다고 네 착각이었다는 말만 들었다는 식으로 시작.

45. 진짜 괴물이다 아니다로 싸우고 수상한 어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옴. 왜 안 그래도 1년 반 전에 30분 떨어진 윌터베리 목장에서 의문의 실종 살인 사건이 있었고 자식을 잃은 노부부가 견디다 못해서 이사를 가지 않았냐.

46. 혹시 그것들의 범인이 아닐까? 범인이 아직도 숲에 있는 거라면? 목격자인 우리를 노리는 거라면?

47. 범인이 선수치기 전에 우리가 작살내서 경찰에 넘기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우리가 비록 애라도 8학년이고 아일라 부모님은 경찰이라면서… 아일라는 ㅇㅋ함. 안그래도 할머니 돌아가신 후 집안이 난리났는데 아버지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겠다고 말함.

48. 이번주 주말에 파자마 파티를 한다 거짓말하고 알렉스 집에 모여서 밤을 샌 후 숲을 뒤지러 가자는 건 어떨까?

49. 스카일러는 자꾸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으나 일단 회귀 전 기억상 무슨 큰 일이 없었으므로 ㅇㅋ함.

50. 집에 와서 러버에게 이 말을 전화로 하려함. 근데 먼저 전화가 걸려옴. -> 이걸 삼촌은 밖에서 옅듣고 있었음

51. 아이들이 모이는 날 낮에 집회가 있을 거고 이걸 들은 리버는 스카일러가 타겟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 데이트를 신청함.

52. 그래서 그날 숙제를 위해 아쿠아리움 예약을 해놧는데 우리 놀러가지 않을래? 시내에 가면 오컬트 서적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해서 오전 오후 약속을 리버랑, 저녁 약속을 애들이랑 하게됨

53. 잘 자… 끊어. 하는 순간 방문의 똑똑똑. 소리. 스카일러는 긴장.

54. 누구세요. 할 때 다시 똑똑똑. 꿈 속에서의 불안감이 그대로 표출.

55. 누구세요! 하고 예민하게 소리칠 때 “이런 미안 스카이, 삼촌이란다.” 하는 말이 들림.

56. 스카일러는 문을 열어주고 친구랑 전화하고 있던 거 같아서 문을 못 열었다 함.

57. 삼촌은 아쿠아리움 데이트 당일날 에이프릴(사촌동생)의 조문을 갈 예정인데 너도 갈래? 하고 스카일러는 죄송해요 그날 선약이 있어서. 하고 거절.

57-1) 스카일러를 재물 중 하나로 쓰려던 예정.

58. 삼촌의 표정이 잠시 굳는 것을 느끼지만 에이프릴 때문이라 생각. 미안하게 여긴다. 삼촌은 그래 ㄱㅊㄱㅊ 친구랑 잘 놀다오렴. 용돈 필요하면 말하고 하면서 끝남.

59. 알 수 없는 기분 나쁨을 느끼던 스카일러는 새벽까지 눈 말똥하다가 혼자 과제를 하다가 결국 손전등 하나 들고 몰래 집 근처 나무를 타고 올라감.

60. 나무를 타고 추억팔이 하다가 알 수 없는 기척을 느끼고 긴장함. 서늘한 기운. 당장이라도 무언가가 튀어나올 거 같은 기척. 사실 이것은 무의식이 경고하는 것임. 도망가. 도망가라고. 스카일러 하고 부르는 무언가의 숨소리가 뒤에서 들리는거 같을 때쯤. 살짝 열린 창문 너머로 사람 목소리를 들음.

61. 삼촌와 이모의 대화를 일부 엿듣게 됨. 우리가 에이프릴을 살릴 수 있을까?

62. 본래도 잠을 잘 수 없던 스카일러지만 괜히 피곤한 느낌을 받으며 약속 장소로 나감

63. 둘은 웨스트처치의 수족관 데이트를 함. 수족관을 보면서 스카일러는 데임타운에 이사를 온 이후로 처음 자기 심정을 말하게 됨. 부모님이 죽기 전에 수족관에 왔다… 에이프릴이 죽기 전에도 한 번 왔었다. 심해는 조용하고 잠 든 느낌일 거 같아서 마음에 든다 이런거.

64. 사실 에이프릴을 닮고 내 처지를 닮아서 네게 끌렸던 걸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너 자체로도 나쁘지 않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 같다 이런 말도 함. 듣던 리버는 한참 침묵하더니 나도야 스카일러. 이런식의 그사세 이야기를 함. 리버는 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함.

65. 둘은 수족관 데이트를 끝내고 뒷골목의 오컬트 가게를 찾음

66. 요상한 페어리 더스트나 엘리멘터리 이런걸 파는 가게였는데… 거기서 스카일러는 이모탈리티에 대한 암시를 찾음. 어라… 어라…? 삼촌네…? 하는 사이 리버가 쿡 찌름.

67. 리버가 찾아온 건 죄책감과 지키지 못한 것에 관한 강한 염원. 이게 저주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보다가 점원이 뭐라 해서 책을 삶. 사면서 요정 가루가 든 페어리 더스트를 하나 사다 리버에게 줌

67-1) 꿈으로 들어오기 전 세계에서는 책은 안 사고 이것만 리버에게 사줬었음. 본래 세 계에서는 이게 필요없으니까. 저주같은건 없으니까.

68. 둘은 데이트를 끝마치고 알렉스의 집으로 모임.

69. 알렉스와 케이든, 아일라, 리암, 칼로, 리버, 스카일러, 에머리가 함께 숲속 탐험에 나섬.

70. 이때 스카일러는 고민하다가 하키 스틱을 들고나가고… 리버는 사실 총을 챙겨왓었음.

71. 불안감을 느끼지만 스카일러는 참음. 애들 허탕침. 그러다 괴물이 아이들을 쫓고… 도망친다.

72. 뭐여 씹…하고 돌아가려는데 에머리가 뭐에 걸려서 넘어짐. 알고보니 시체.

73. 예상하고 있던 리버는 얼굴이 하얘진채 뒤돌아서 도망치고 스카일러는 본능적으로 그냥 애를 보내면 위험할 거 같아서 잡으러감. 여기서 리버를 놓치면 나는… 나는? 갑자기 꿈속 내용이 떠오름. 리버는 자기보고 미안하다 하고 있었음. 이유를 듣고 싶어하던 스카일러는 리버를 잡지만 리버는 스카일러를 뿌리치고 도망가버림.

74. 저기 너머에서 케이든이 소리치는 것이 들림. 이시발 애들아! 이사람 내장이 파먹혔어! 우는 케이든을 아일라가 보호함. 울지마 뚱땡아! 둘 싸우지만 이걸로 화해.

75. 스카일러는 근처에서 또 ‘괴물’의 기척을 느끼고 숨을 몰아쉼. 리버를 찾아야해. 리버를.

76. 그때 친한 친구인 리암과 칼로가 와서 스카일러 진정해. 하고 부축해서 돌아감.

77. 아이들은 아일라의 아버지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건을 끝으로 겨울이 옴. 위험하니 외출금지 당한 아이들. 그리고 사건 수사인데 결국 알코올중독 홈리스가 범인으로 잡혀감. 내장은 들짐승이 먹은걸로. 아일라 아버지도 이모탈리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결.

-> 아이들은 마을에 괴물이 있다 말하지만 씹힘.

78. 리버와 자기는 수족관 과제를 냈고 1학기 아키텍쳐 과제 점수를 잘 받음. 이 과제를 끝으로 리버가 먼저 접촉해 오는 일은 없었음.

79. 그동안 스카일러는 오컬트와 이모탈리티 책을 읽으면서 고민함. 자기가 자지 못하는 이유. 리버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유. 리버는 죽음을 겪은 건가? 괴물은? 이때 이모탈리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옴.

80. 너무 신경 쓰여서 스카일러는 리버에게 전화함.

81. 한편 리버는 협박을 받고 있었음. 할머니한테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음.

82. 근데 스카일러는 부재중으로 네가 걱정되고 그… 뭐 때문에 나를 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풀리면 다시 연락해주었으면 좋겠어. 기다릴게. 이런걸 남김.

83. 이걸 듣고 리버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 스카일러가 제물로 선정된 날 그를 구해주기로 마음먹음. -> 이부분은 다음 에피 이후로 빼기

84. 리버가 결석한 날이었고 눈이 내린 날이었음.

85. 오늘은 에이프릴의 기일이니 일찍 귀가해서 같이 에이프릴을 보러 가자함. 스카일러는 지긋지긋하지만 ㅇㅋ함. 오늘따라 삼촌과 이모 두 사람의 표정이 유달리 밝았음. -> 아래로감

86. 점심을 먹는데 아일라가 “요즘 할머니가 기운 차릴 거 같아서 다행이다”는 말을 함.

87. 에머리는 그 일 이후로 이사를 갔고 다른 아이들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음. 애들 전반적으로 의기소침함.

88. 그와중에 칼로와 케이든이 투닥거리고 그날 시체로 발견된 시신의 가족은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초상집이라는 말이 나옴.

89. 애들이 무섭네… 그러게… 누군가가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아일라는 이해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함.

90. 케이든이 먼저 말을 꺼냄. 근데 이상하지 않냐고… 그 범인 아저씨 알리바이 완벽한데?

91. 주저하다가 스카일러가 먼저 말을 꺼냄. 종교 아닐까? 이모탈리티. 리버와 데이트 때 봤던 책과 전단지를 보여줌.

92. 애기들 허어미… 하고 아일라는 고민에 빠짐.

93. 이게 사실이면 위험한 거 아니냐. 하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들어주는데… 이번주에 다시 한 번 케이든 집에서 모이자 하고 애들 다 ㅇㅋ함.

94. 이날 이후 스카일러는 리버 집에 한 번 가서 위의 빨간색 말을 함. 편지도 남김. 리버는 스카일러를 구하기로 마음먹음.

95. 주말에 케이든 집에서 만나면서 이야기함.

96. 아일라는 조심스럽게… 자기 부모님이 그걸 믿는 거 같다면서. 경찰도 한통속이 아닐까…? 하는 말을 떨리게 꺼냄. 에머리는 이사갔고 리암과 칼로의 부모는 아이들 사이의 소문이라 생각함.

97. 부모님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걸 케이든이 위로하고 미안하다 함.

98. 그래서 부모님이 가진걸 뒤져봤는데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집회라는 것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함. 저번 집회가 그 노부부 딸 실종때니까… 곧… 이런말을 함.

99. 아이들은 괴물들이 어른들을 현혹한다 생각. 괴물을 퇴치하자 모의함. 그리고 이모탈리티의 집회를 파헤치고 스태파니 선생님의 죽음을 밝히고 다음 희생양을 없애기 위해서 다음 집회때 몰래 들어가기로 함.(각자 자기의 소중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양 하나씩 저당잡힌 아이들)

100.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런짓이라니 추악하다 함. 이모와 이모부를 좀 그런 눈으로 보고 침실로 들어감. 이모가 가져다둔 조각상이 소름돋음.

101. 스태파니 선생님 대신 새로 온 선생님이 며칠 뒤 저녁은 다른 용도로 학교가 쓰일거니까 일찍 귀가하라 하라 함.

102. 며칠 뒤는 에이프릴의 기일이니 일찍 귀가해서 같이 에이프릴을 보러 가자함. 스카일러는 지긋지긋하지만 ㅇㅋ함. 오늘따라 삼촌과 이모 두 사람의 표정이 유달리 밝았음.

103. 아일라도 자기의 부모님이 내일 외출하니까 집회가 맞는 거 같다고. 애들이 난입할 계획을 세움.

104. 그날 저녁 리버에게 문자를 보내고… 리버에게 전화가 옴. 근데 스카일러는 저녁에 에이프릴을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못 받음.

105. 다음날 ㄹㅇ 가게됨

106. 스카일러는 가는 길에 이모와 삼촌에게 이모탈리티에 대해 물어보려 하지만 어색함을 깨지 못하고 못 물어봄.

107. 이모가 주는 약탄 음료를 먹었지만 저주떄매 몸이 움직이지 않을뿐 정신 멀쩡.

리버가 스카일러를 재우고 희생당하러감

본래는 부모님을 되살려야겠다 생각했어. 근데… 근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 너와 함께 있을 때면 무척이나 즐거웠어. 시덥잖은 이야기도 좋았고 어색한 침묵도 견딜 수 있었어. 그냥… 그래 뭐든 좋았다는 의미야. 너는 남인데도. 근데 부모님과 있을 때는 난… 매일같이 너무 불행했어. 아마 자살한 부모님도 그랬겠지. 그치만 그때는 그것이 불행인줄 몰랐던 거 같아. 가족 전원이 말이야… 나는 불행을 되살리느니 너라는 행복을 살리고 싶어.